

성인의 대인관계문제가 대인관계정서 및 대인관계만족에 미치는 영향: 성별의 조절효과

조 영 주[†]

한경대학교 / 조교수

본 연구는 대인관계문제(멀어짐, 맞섬, 향함), 대인관계정서(긍정정서, 부정정서) 및 대인관계만족 간의 관계와 이들 관계에서 성별의 조절효과를 살펴보았다. 20대에서 60대의 남녀 346 명으로부터 수집한 자료를 상관분석과 회귀분석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대인관계문제와 대인관계 긍정정서 간의 관계를 살펴보면, 멀어짐 문제는 긍정정서와 부적 관련이 있었고 맞섬 문제는 긍정정서와 정적 관련이 있었으며 향함 문제는 긍정정서와 유의한 관련이 없었다. 둘째, 대인관계문제와 대인관계 부정정서 간의 관계를 보면, 멀어짐 문제 및 맞섬 문제는 부정정서와 정적 관련이 있었고 향함 문제는 부정정서와 유의한 관련이 없었다. 셋째, 멀어짐 문제는 대인관계만족과 정적 관련이 있었고, 맞섬 문제 및 향함 문제는 대인관계만족과 유의한 관련이 없었다. 넷째, 맞섬 문제와 대인관계 부정정서 간의 관계 및 향함 문제와 대인관계만족 간의 관계에서 성별의 조절효과가 유의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논의하였고 연구의 학문적 의의, 상담에의 함의 및 연구의 제한점을 포함하였다.

주요어 : 대인관계문제, 대인관계 긍정정서, 대인관계 부정정서, 대인관계만족, 성차, 조절효과

[†] 교신저자 : 조영주, 한경대학교 브라이트칼리지, 경기도 안성시 중앙로 327
Tel : 031-670-5414, E-mail : yjcho@hknu.ac.kr

가족, 친구, 연인 및 동료와 원만한 대인관계를 맺고 지속하는 것은 삶의 중요한 영역이다. 심리 상담을 원하는 내담자의 주 호소문제 중 대인관계문제가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박미라, 2017)도 대인관계의 중요성을 보여준다. 대인관계와 관련하여 대인관계문제에 관한 연구가 많이 이루어졌고(홍상환 등, 2002; Alden, Wiggins, & Pincus, 1990; Horowitz, Rosenberg, Baer, Ureno, & Villasenor, 1988; Wendt et al., 2019), 대인관계문제나 대인관계 문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는 심리 상담에서 대인관계문제를 이해하고 해결하거나 예방하는 데에 활용되었다.

그렇다면 대인관계문제가 적은 것이 대인관계의 질이 좋은 것을 의미하는가? 이 질문은 긍정심리학과 맥을 같이 한다. 긍정심리학에서는 심리적 문제가 없는 것이 건강하고 행복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고, 심리학이 삶의 만족, 행복, 강점, 덕성 등과 같은 긍정적 측면도 연구해야 한다고 강조한다(Diener, 1984; Seligman, & Csikszentmihalyi, 2000). 이러한 흐름은 대인관계 연구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데, 연구자들은 대인관계문제와 함께 대인관계만족(Schlein, & Guerney, 1971), 대인관계 유능성(한나리, 이동귀, 2010; Buhrmester, Furman, Wittenberg, & Reis, 1988), 사회적 기술(김여흠, 이윤주, 2013), 긍정적 대인관계(양은정, 노해림, 박재현, 전홍진, 심은정, 2019; Ryff, 1989) 등을 연구하였다.

대인관계문제가 지속되면 부정적 대인관계 패턴이 형성되고 이는 낮은 대인관계만족으로 이어질 수 있는데(이원경, 2011), 최근 연구자들을 낮은 수준의 대인관계문제가 반드시 높은 대인관계만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고 보고하였다(심은정, 조영주, 박단비, 2019; 조

영주, 2020). 대학생과 20대를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에서는 대인관계문제와 대인관계만족 간의 상관을 -.27에서 -.57로 보고하였는데(심은정 등, 2019; 이원경, 2011; 조영주, 2020), 이러한 수치는 대인관계문제와 대인관계만족 간에 중간에서 큰 크기의 관련성이 있기는 하지만 두 개념을 동일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움을 의미한다. 이들 간의 관련성을 보다 명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다양한 집단과 연령에서 대인관계문제와 대인관계만족 간의 관련성이 선행연구와 일관적으로 나타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또한 대인관계의 질을 보다 통합적으로 살펴보기 위해서는 대인관계만족과 같은 인지적 측면에 더하여 정서적 측면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Diener et al.(Diener, 1984; Diener, Emmons, Larsen, & Griffin, 1985)은 삶에 대한 주관적 안녕감이 자신의 생활 전반에 대한 인지적, 정서적 평가로 구성된다고 주장하였다. 이를 대인관계에 적용하면 대인관계 안녕감은 대인관계 전반에 대한 인지적 평가와 정서적 평가를 포함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생활 전반에 대한 인지적 안녕을 삶의 만족으로 평가하는 것처럼 대인관계에서의 인지적 안녕은 대인관계만족으로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생활전반에 대한 정서적 안녕을 긍정정서와 부정정서로 평가하는 것과 같이, 대인관계에서의 정서적 안녕은 대인관계 긍정정서와 부정정서로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남녀 성인을 대상으로 대인관계문제와 대인관계만족 간의 관계를 경험적으로 연구함으로써 이들 간의 복합적 관련성을 보다 명확하게 하고자 한다. 이에 더하여, 대인관계 긍정정서 및 부정정서를 포함하여 대인관계문제와 대인관계에 대한 정서적 평가

간의 관계를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사회화 과정에서 남성은 과업중심적으로 사회화되고 여성은 관계지향적으로 사회화된다는 점을 고려하여(김지경, 김명소, 2003; Broverman, Vogel, Broverman, Clarkson, & Rosenkrantz, 1972), 본 연구에서는 대인관계문제, 대인관계정서 및 대인관계만족과 이들 간의 관계에서 성차를 탐색할 것이다.

대인관계문제

대인관계문제는 구체적인 대인관계 상호작용에서 경험하는 부정적 인지, 정서 및 행동을 말한다(Horowitz et al., 1988). Sullivan(1953)은 지배 욕구와 친밀 욕구를 충족시키는 방식에 따라서 대인관계 양식이 발달한다고 주장하였다. 그의 이론을 적용하여 연구자들은 통제-복종과 적대-친밀을 두 개의 축으로 하는 대인관계 원형 모형을 제안하기도 하였는데, 대표적으로 Alden et al.(1990)은 지배-복종과 적대-친밀을 직교적인 축으로 하는 원형 상에 통제지배, 자기중심성, 냉담, 사회적 억제, 비주장성, 과순응성, 자기희생 및 과관여의 8개 대인관계문제를 포함하는 원형 모형을 제안하였다.

대인관계문제 원형 모형에 더하여 Horney(2006)의 신경증적 경향성 이론도 대인관계문제를 이해하는 유용한 틀로 활용되었다. Horney(2006)는 유아기에 경험하는 대인관계에서 자신의 욕구를 만족시킬 수 없을 때, 무력감, 적대감 및 고립감 등 근본적 불안을 경험하게 된다고 하였다. 그는 이러한 근본적 불안에 대처하기 위한 방식으로 대인관계양식을 발달시킨다고 하면서, 대인관계양식에 사람들에게 향함, 사람들에게 맞섬 및 사람들에게서

멀어짐을 포함하였다. Horney(2006)에 따르면, 근본적 불안이 무력감과 관련되어 있을 때 사람들은 타인이 자기보다 우월하다고 생각하고 그들에게 의지하거나 복종하며 이를 통해서 자신의 무력감에서 벗어나고자 한다. 그는 근본적 불안이 적대감과 관련되어 있는 사람은 자신의 적대감을 타인에게 투사하고 타인을 지배하거나 싸우는 대인관계양식을 발달시키고, 근본적 불안이 고립감과 관련된 것일 때 다른 사람에게서 거리를 두고 자신의 세계에 머무르는 모습을 보인다고 하였다. 그는 멀어짐 문제를 타인과 상호작용하면서 생길 수 있는 갈등을 경험하지 않도록 관계에서 철회하는 것으로 보았다. 이와 같은 대인관계 어려움은 전반적인 대인관계만족과 관련성이 있다.

대인관계문제와 대인관계만족

대인관계만족은 대인관계가 얼마나 만족스러운지에 대한 주관적인 평가로(최인영, 김은하, 신희천, 2018), 전반적 행복감에 영향을 미치는 직접적이고도 주요한 요인이다(김여흠, 이운주, 2013). 대인관계만족은 대인관계문제와 관련이 있는데, 일상의 대인관계 상호작용에서의 부정적인 생각, 감정 및 행동과 같은 대인관계문제는 대인관계 전반에 대한 인지적 평가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이원경, 2011, 조영주, 2020). 이원경(2011)은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전반적인 대인관계문제는 대인관계만족과 큰 크기의 부적 관련이 있다고 보고하였다.

대인관계문제와 대인관계만족 간의 부적 관련성은 대인관계문제를 구분하여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볼 수 있다. 대인관계문제를 Horney(2006)의 틀에 따라 범주화하여 멀어짐 문제,

맞섬 문제 및 향함 문제로 구분했을 때, 대인관계에서 타인에게 거리를 두고 자신의 세계안으로 자신을 고립시키는 멀어짐 문제는 대인관계만족과 가장 큰 관련성이 있다(조영주, 2020). 멀어짐 문제가 있는 사람들은 관계유지뿐만 아니라 관계 형성에 어려움이 있고, 이는 자율성, 유능감 및 관계성 욕구의 미충족으로 이어지기 때문에(조영주, 서현지, 2018; 조영주, 윤정설, 2019), 대인관계만족과 삶의 안녕감이 낮다고 볼 수 있다(Ryan & Deci, 2002).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조영주(2020)의 연구에서는 남녀 모두 멀어짐 문제는 대인관계문제와 큰 부적 관련성을 보였고, 20대 성인을 주요 대상으로 한 심은정 등(2019)의 연구에서 다른 사람에게 거리를 두는 적대 문제와 대인관계만족 간의 부적 상관은 큰 크기로 보고되었다.

맞섬 문제와 대인관계만족 간의 부적 관련성은 상대적으로 약한 것으로 보인다. 조영주(2020)의 연구에서 맞섬 문제는 대인관계만족과 부적 관련성이 있었으나, 다른 대인관계문제를 고려했을 때 남학생의 경우는 맞섬 문제와 대인관계만족 간에 유의한 관련성을 보이지 않았고 여학생의 경우는 부적 관련성을 보였으나 그 크기는 작았다. 한편 심은정 등(2019)의 연구에서는 다른 사람을 통제하고 지배하고자 하는 통제 문제는 대인관계만족과 유의한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이는 다른 사람을 통제하고 지배하고자 하는 맞섬 문제가 높을 때 대인관계에서 자율성이나 관계성의 욕구가 충족되기 어렵지만 유능감의 욕구가 충족되기 때문으로 이해할 수 있다(조영주, 서현지, 2018; 조영주, 윤정설, 2019). 맞섬 문제와 대인관계만족 간의 관계는 복잡적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맞섬 문제가 높

을 때 타인에게 부정적 피드백을 받기 때문에 관계만족이 낮아지는 한편, 통제, 지배를 통한 유능감을 경험하기 때문에 맞섬 문제와 관계만족 간의 부적 관계가 상쇄될 수 있다(조영주, 2020).

마지막으로 향함 문제와 대인관계만족 간의 관련성이 복잡적이다. 타인에게 의지하고 의존하는 대인관계문제가 있을 때 자율성과 유능감의 욕구는 충족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관계성의 욕구가 어느 정도 충족되기 때문이다(조영주, 서현지, 2018; 조영주, 윤정설, 2019). 조영주(2020)의 연구에서는 남녀 모두 향함 문제와 대인관계만족 간에 유의한 관련성이 보고되지 않았다. 한편 심은정 등(2019)의 연구에서는 타인에게 의지하는 친밀 문제는 대인관계만족과 정적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낮은 대인관계문제가 높은 대인관계만족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살펴본 바와 같이 대인관계문제의 양식에 따라 대인관계만족과의 관련성이 복잡한 것으로 보고되었기 때문에, 이를 명료화하기 위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또한 대인관계만족은 대인관계 전반에 대한 인지적 평가이므로 본 연구에서는 대인관계 전반에 대한 정서적 평가를 포함함으로써 대인관계 안녕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자 한다.

대인관계문제와 대인관계정서

삶 전반에 대한 주관적 안녕감이 인지적 평가와 정서적 평가로 구성되는 것처럼(Diener, 1994; Myers, & Diener, 1995), 대인관계 안녕과 행복도 인지적 평가인 대인관계만족에 더하여 대인관계에서의 정서적 경험을 포함해서 이해

할 수 있다. 최근에 몇몇 연구자들은 주관적 안녕의 영역을 제한하여 대인관계에서의 안녕에 관심을 가졌다. Yu와 Chang(2021)은 가족, 친구, 연인과의 관계 등 사회적 관계에서의 안녕을 강조하면서 이를 대인관계 안녕(interpersonal well-being)이라고 하였다. Flores-Verduzco, Fraijo-Sing과 Tapia-Fonllem(2020)은 사회적 구성에 대한 주관적 지각과 이해를 사회적 안녕(social well-being)이라고 하면서 학업 관여와 학교에서의 정서로 고등학생들의 사회적 안녕을 측정하였다. Urbano-Contrás, Martínez-González와 Iglesias-García(2018)는 커플 관계에서의 주관적 안녕을 측정하는 커플 관계 주관적 안녕 척도(Subjective Well-being in Couple Relationship Scale)을 개발하기도 하였다. Le, Impett, Lemay, Muise와 Tskhay(2018)는 대인관계에서의 안녕을 주관적 개인적 안녕(subjective personal well-being)과 관계 안녕(relationship well-being)으로 구분하면서, 관계 안녕에 만족감, 파트너에 대한 긍정정서, 파트너에 대한 부정정서를 포함하였다.

Diener(1994)는 주관적 안녕은 삶의 만족도가 높은 것에 더하여 긍정정서 수준이 높고 부정정서 수준이 낮은 상태라고 하였다. 이 때 긍정정서는 기쁨, 즐거움, 만족, 행복 등의 정서를 포함하며, 부정정서는 분노, 두려움, 슬픔, 죄책감, 혐오 등의 정서를 포함한다(박홍석, 이정미, 2016; 이현희, 김은정, 이민규, 2003; Watson, Clark, & Tellegen, 1988). 이를 대인관계에 적용하면 대인관계 긍정정서는 대인관계에서 느끼는 기쁨, 즐거움, 만족, 행복과 같은 긍정정서라고 할 수 있고, 대인관계 부정정서는 대인관계에서 느끼는 분노, 두려움, 슬픔, 죄책감, 혐오와 같은 부정정서라고 할 수 있다. 부정정서가 낮은 것이 반드시 긍정정서가

높은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데, 낮은 부정정서는 차분하고 평온한 상태를 의미하며 높은 긍정정서는 높은 수준의 에너지, 완전한 집중, 몰입한 상태를 의미하기 때문이다(박홍석, 이정미, 2016; Watson et al., 1988).

대인관계에서의 정서와 관련해서 정서 억제, 정서 조절, 정서 주의, 정서 명확성, 정서 표현 양가성 등이 연구되었는데(배애진, 심혜원, 2018; 어유경, 박수현, 2018; 이경희, 김봉환, 2010), 대인관계 긍정정서 및 부정정서와 같은 정서의 내용 자체에 초점을 맞춘 연구는 찾아보기 어렵다. 대인관계정서와 대인관계만족 간의 관련성은 전반적 긍정정서 및 부정정서와 대인관계만족의 관계에 관한 선행 연구(허재홍, 2014; 김명소, 김혜원, 차경호, 2001; 오영진, 박봉순, 2011)로 유추해 볼 수 있는데, 선행연구는 일관적으로 긍정정서와 대인관계만족 간의 정적 상관과 부정정서와 대인관계만족 간의 부적 상관을 보고하였다.

대인관계정서와 대인관계만족 간의 관계를 이해하는데 대인관계문제와 대인관계만족 간의 관계를 적용하면, 멀어짐 문제는 긍정정서와는 부적 관련성을 갖고 부정정서와는 정적 관련성을 가질 것으로 예측할 수 있고, 맞섬 문제 및 향함 문제는 긍정정서 및 부정정서와의 관련성이 미미할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그러나, 높은 긍정정서 및 낮은 부정정서가 대인관계만족과 일치하지 않고 긍정정서와 부정정서는 독립적이기 때문에(박홍석, 이정미, 2016; Watson et al., 1988), 대인관계문제와 대인관계정서 및 대인관계만족 간의 관련성을 검증하는 경험적 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대인관계문제와 대인관계만족 간의 관계에 더하여 대인관계문제와 대인관계 긍정정서 및 대인관계 부정정서 간의 관계를 탐색할 것

이다.

성별의 효과

대인관계는 개인이 살아가고 있는 사회 문화적 기준, 요구 및 기대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특히 생물학적 성에 따라 각기 다른 성역할 사회화 과정을 거치면서 성별에 따른 대인관계 차이가 나타날 수 있는데(조영주, 2020), 성역할 사회화 과정을 통해서 형성된 성역할 정체감은 사고, 태도, 행동과 생활양식 전반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장휘숙, 2002). 선행연구에서는 본 연구의 주요 변인인 대인관계문제에서 성차를 보고하기도 하였다. 한가희와 이인혜(2016)는 여학생이 대인관계문제를 더 높게 보고한다고 하면서, 그들은 관계 친화적인 여성이 갈등이나 어려움을 더 민감하게 지각하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몇몇 연구에서는 맞섬 문제는 남성에게서 상대적으로 더 높은 것으로 보고하였는데(김용순, 2019; 유경철, 안도희, 2019; 조영주, 서현지, 2018), 이는 공격적이고 지배적인 특성을 포함하는 남성성과 연결할 수 있다. 그러나 다른 연구(조영주, 2020)는 맞섬 문제에서 성차를 보이지 않은 것으로 보고하기도 하였다. 한편 향함 문제는 여성에게서 더 많다고 보고되었는데(김용순, 2019; 유경철, 안도희, 2019; 조영주, 2020; 조영주, 서현지, 2018), 이는 대인관계에서 정서적인 유대감을 얻기 위해서 의지하고 수동적인 태도를 보이는 여성성과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김지경, 김명소, 2003).

대인관계만족에서의 성차 또한 두드러지게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성역할 사회화와 관련하여 여성이 보다 관계지향적으로 대인관계에 보다 능숙할 것으로 기대할 수 있

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여성이 대인관계에 대한 기대 수준이 높기 때문에(한가희, 이인혜, 2016), 주관적인 만족감에서는 성차를 보이지 않을 수 있다. 선행연구에서 조영주(2020)는 남성과 여성 간에 대인관계만족에서 유의한 차이가 없다고 보고하였고, 심은정 등(2019)은 대인관계만족에 대한 성별의 효과가 유의하다고 하였으나 성차를 구체적으로 보고하지는 않았다.

대인관계정서에서의 성차에 관한 연구는 찾기 어렵고, 일반적인 긍정정서와 부정정서에서의 성차를 통하여 대인관계정서에서의 성차를 유추할 수 있다. 연구자들은 정서 경험과 정서 표현에서도 성역할 사회화로 인한 성차가 나타난다고 주장한다(한민, 최인철, 김범준, 이훈진, 2012; Kring, & Gordon, 1998). 여성이 돌봄의 역할을 담당했기 때문에 돌봄에 필요한 정서 인식이나 정서 표현이 여성에게 더 활성화 되어 있고 더 허용된다는 것이다(Broverman, et al., 1972; Wood, Rhodes, & Whelan, 1989). 경험적 연구를 살펴보면, Wood et al.(1989)은 긍정정서에 대한 메타분석에서 여성의 긍정정서가 남성에 비해서 높다고 보고하였다. 또 다른 연구자들은 긍정정서에는 성차가 없지만 부정정서는 여성이 더 높았다고 보고하였다(Lucas, & Gohm, 2000; Zuckerman, & Diener, 2017).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한민 등(2012)의 연구에서 긍정정서는 남학생이 더 높았고 부정정서는 여학생이 더 높았다고 보고하였다. 우울이나 불안과 같이 정서와 관련된 심리적 어려움이 남성에게서 여성에게서 높은 빈도로 보고된 것도(노명선 등, 2006) 이런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한편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긍정정서 및 부정정서 모두 성차가 나타나지 않는

다고 보고하기도 하였다(구재선, 2018; 육근영, 방희정, 옥정, 2006). 정서에서의 성차를 설명하면서 한민 등(2012)은 남성과 여성이 긍정정서와 부정정서를 경험하는 삶의 영역이 다를 수 있다고 하면서 정서 영역의 성차에서는 면밀한 비교가 필요하다고 제안하였다. 또한 구재선(2018)은 긍정정서 및 부정정서에서 성차가 나타나지 않는 이유를 연구대상에서 찾았는데, 대학생의 경우 사회적 지위의 차이가 작기 때문에 성차가 나타나지 않을 가능성을 제기하면서 다양한 집단에 대한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고 제안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연령의 성인을 대상으로 대인관계 영역의 정서에서 성차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성차와 성역할 사회화가 대인관계문제, 대인관계정서 및 대인관계만족 간의 관계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할 수 있지만, 이들 간의 관계에서 성차를 다룬 연구는 제한적이다. 대인관계문제와 대인관계만족 간의 관계에 관한 조영주(2020)의 연구에서 남녀 모두 멀어짐 문제가 대인관계만족을 설명하였고, 향함 문제는 대인관계만족과 관련성이 없었으며, 맞섬 문제는 남성의 대인관계만족을 유의하게 설명하지 못한 반면 여성의 대인관계만족을 설명하였다. 일반적인 대인관계가 아닌 커플 관계에 관한 연구에서 김미정과 조영주(2017)의 연구에서는 의사소통과 관계만족 사이에 성차 보고되지 않았는데, 남녀 모두 비난 의사소통과 경멸 의사소통은 관계만족을 부적으로 설명한 반면, 방어 의사소통과 냉담 의사소통은 관계만족과 유의한 관련이 없다고 보고하였다.

살펴본 바와 같이, 대인관계문제, 대인관계정서 및 대인관계만족에서의 성차에 관한 연

구 결과는 일관적이지 않으며 이들 간의 관계에서 성차를 살펴본 연구는 찾아보기 어렵다. 이들 간의 관련성을 보다 명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한 실정이다. 또한 대인관계에서의 문제, 정서 및 만족의 관계를 살펴 본 선행 연구는 대학생이나 20대를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연구 대상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대부분의 대학생이나 20대는 초기 성인기로 다양한 사람들과의 대인관계가 활발해지기 시작하는 시기이기는 하지만, 직장동료와의 관계, 상사로서 부하직원과의 관계, 부부관계, 자녀와의 관계에 대한 경험은 상대적으로 적다(권석만, 2004). 이러한 이유로 대학생이나 20대를 대상으로 한 연구 결과를 일반화하는 데는 제한점이 있고, 다양한 연령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요구된다.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연령대의 성인을 대상으로 대인관계문제, 대인관계 긍정정서와 부정정서, 대인관계만족 간의 관계를 살펴보고 이들 관계에서 성차를 탐색하고자 한다.

연구가설 및 연구문제

대인관계문제가 대인관계정서 및 대인관계만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가설과 이들 관계에서 성별의 효과를 탐색하는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가설 1. 대인관계문제는 대인관계 긍정정서와 부적 관련이 있고, 대인관계 부정정서와 정적 관련이 있을 것이다.

연구가설 2. 대인관계문제는 대인관계만족과 부적 관련이 있을 것이다.

연구문제 1. 대인관계문제, 대인관계정서 및 대인관계만족에는 성차가 있는가?

연구문제 2. 대인관계문제와 대인관계정서

및 대인관계만족의 관계에서 성별의 조절효과가 있는가?

방 법

연구대상

온라인 설문조사를 활용하여 성인 남녀로부터 설문자료를 수집하였다. 연구 참여자에게

는 본 연구의 목적과 방법, 소요시간, 비밀보장 등을 포함한 설명문을 제공하였고, 본 연구에 동의를 표하는 경우에만 설문을 시작할 수 있도록 하였다. 연구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은 표 1에 제시하였다. 수집된 자료에서 남성은 171명으로 전체의 49.4%, 여성은 175명으로 전체의 50.6%였다.

측정도구

표 1. 연구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전체	남성	여성
나이	20-29	64 (18.5%)	27 (15.8%)	37 (21.1%)
	30-39	62 (17.9%)	31 (18.1%)	31 (17.7%)
	40-49	73 (21.1%)	38 (22.2%)	35 (20.0%)
	50-59	76 (22.0%)	40 (23.4%)	36 (20.6%)
	60-69	71 (20.3%)	35 (20.5%)	36 (20.6%)
결혼여부	미혼	130 (37.6%)	61 (35.7%)	69 (39.4%)
	기혼	208 (60.1%)	106 (62.0%)	102 (58.3%)
	기타	8 (2.3%)	4 (2.3%)	4 (2.3%)
교육수준	고졸이하	60 (17.3%)	26 (15.2%)	34 (19.4%)
	전문대졸	54 (15.6%)	22 (12.9%)	32 (18.3%)
	4년대졸	194 (56.1%)	100 (58.5%)	94 (53.7%)
	석사학위 이상	38 (11.0%)	23 (13.5%)	15 (8.6%)
직업	전업	205 (59.2%)	117 (68.4%)	88 (50.3%)
	비전업	21 (6.1%)	12 (7.0%)	9 (5.1%)
	가정주부	50 (14.5%)	0 (0%)	50 (28.6%)
	학생	19 (5.5%)	9 (5.3%)	10 (5.7%)
	무직	27 (7.8%)	16 (9.4%)	11 (6.3%)
	기타	24 (6.9%)	17 (9.6%)	7 (4.0%)
전체		346 (100%)	171 (100%)	175 (100%)

주. 제시된 수치는 빈도(%)

대인관계문제

대인관계문제를 측정하기 위하여 Horowitz et al.(1988)이 개발한 대인관계문제검사 (Inventory of Interpersonal Problems: IIP)를 Alden et al.(1990)이 대인관계문제 원형척도(IIP-CS)로 재구성한 것을 홍상환 등(2002)이 한국형 대인관계문제 검사 원형척도 단축형(KIIP-SC)으로 타당화 하고, 조영주와 윤정설(2019)이 요인분석하여 재구조화한 대인관계문제 척도를 활용하였다. 대인관계문제 척도는 멀어짐 문제, 맞섬 문제 및 향함 문제의 세 가지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멀어짐 문제는 친밀감을 느끼고 사회적 접촉 및 자기표현을 어려워하고 피하며 자신의 세계에 머무르는 것을 말한다. 맞섬 문제는 지나치게 자기주장을 하고 다른 사람을 통제하고 간섭하는 것을 의미하며, 향함 문제는 다른 사람이 원하는 것에 지나치게 민감하고 과도하게 책임지려 하며 다른 사람에게 쉽게 이용당하는 것을 포함한다. 멀어짐 문제는 18개 문항, 맞섬 문제는 9개 문항, 향함 문제는 7개 문항으로 측정하며, 각 문항은 5점 Likert 척도(1=전혀 그렇지 않다, 5=매우 그렇다)로 평정하도록 하였다. 각 하위척도의 문항의 점수를 평균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대인관계문제가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멀어짐 문제, 맞섬 문제 및 향함 문제의 내적 합치도(Cronbach's α)는 조영주와 윤정설(2019)의 연구에서는 각각 .92, .87, .79였고, 본 연구에서는 각각 .95, .86, .81이었다.

대인관계정서

대인관계 긍정정서와 부정정서를 측정하기 위해서 Watson et al.(1988)이 개발한 긍정정서 부정정서 척도(Positive Affect Negative Affect Scale; PANAS)를 이현희 등(2003)이 한국판으로

타당화하고, 이를 박홍석과 이정미(2016)가 다시 수정, 보완하여 타당화한 것을 사용하였다. PANAS는 긍정정서를 측정하는 10개 문항과 부정정서를 측정하는 10개 문항을 포함한 총 20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5점 Likert 척도(0=전혀 그렇지 않다, 4=매우 많이 그렇다)로 응답하게 되어 있고, 긍정정서와 부정정서를 각각 평균한 점수가 높을수록 긍정정서 및 부정정서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대인관계 긍정정서와 대인관계 부정정서를 측정하기 위해서 응답자들에게 현재를 포함한 지난 한달 동안 대인관계에서 느꼈던 정도를 각각의 문항에 응답하도록 하였다.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박홍석과 이정미(2016)의 연구에서는 긍정정서와 부정정서의 내적 합치도(Cronbach's α)는 각각 .86과 .83이었다. 본 연구에서 대인관계 긍정정서와 대인관계 부정정서의 내적 합치도는 각각 .88과 .92였다.

대인관계만족

대인관계만족을 측정하기 위해서 Schlein과 Guerney(1971)의 인간관계변화척도(Relationship Change Scale)를 문선모(1980)가 번안한 것을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일반적인 대인관계, 부모와의 관계, 교사와의 관계 및 친구와의 관계 등 4개의 하위영역에서의 만족을 포함한다. 본 연구에서 대인관계만족은 대인관계 전반에 대한 인지적 평가를 의미하는 것으로 개념화하였기 때문에 전체 척도 중에서 일반적인 대인관계만족도를 측정하는 5개 문항만 포함하였다(예: '다른 사람들과 나의 관계는 원만하다.'). 각 문항은 5점 Likert 척도(1=전혀 그렇지 않다, 5=매우 그렇다)로 응답하도록 하였고, 높은 점수는 관계만족 정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성인을 대상으로 한 심은정 등 (2019)의 연구에서는 내적 합치도(Cronbach's α)가 .77이었고, 본 연구에서는 .84였다.

자료분석

기술분석을 실시하여 주요 변인의 평균, 표준편차, 왜도와 첨도를 살펴보고, 상관분석을 실시하여 주요 변인 간의 상관을 살펴보았다. 본 연구에서 성차와 관련된 연구문제를 탐색하기 위하여 성별을 독립변인으로 하고 대인관계문제, 대인관계정서 및 대인관계만족을 종속변인으로 하는 다변량 분산분석(MANOVA)을 실시하였다. 다음으로 연구가설을 검증하기 위하여 대인관계 긍정정서, 대인관계 부정정서 및 대인관계만족 각각을 종속변인으로 하는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단계 1에서는 나이를 투입하여 나이가 대인관계정서 및 대인관계만족에 미치는 영향을 통제하였다. 단계 2에는 멀어짐 문제, 맞섬 문제 및 향함 문제를 투입하여 대인관계 부정정서, 대인관계 긍정정서 및 대인관계만족에 대한 대인관계문제의 효과를 살펴보았다. 단계 3에서는 성별 및 성별과 대인관계문제 간 상호작용 항을 투입하여 성별의 주효과와 조절효과를 살펴보았다. 상호작용 항을 산출할 때에는 다중공선성의 문제를 줄이기 위하여 각 변인의 값을 평균 중심화 하여 사용하였고, 성별은 효과코딩 하였다(서영석, 2010). 상호작용 효과가 유의한 경우에 개별 기울기 검증을 실시하여 조절효과를 구체적으로 살펴보았다(Preacher, Curran, & Bauer, 2006).

결 과

본 연구에서 대인관계문제, 대인관계정서 및 대인관계만족의 왜도의 범위는 -0.15에서 0.48이었고, 첨도의 범위는 -0.77에서 0.25였다. 왜도와 첨도는 각각 2 이하, 7 이하로 West, Finch와 Curran(1995)에 따르면 연구의 표본이 정상분포를 보인다고 할 수 있다.

대인관계문제, 대인관계정서 및 대인관계만족에서의 성차를 검증하기 위하여 다변량 분산분석(MANOVA)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를 표 2에 포함하였다. 성차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는데(Wilks' $\lambda=.96$, $F(6,339)=2.40$, $p<.05$), 구체적으로 남성이 여성에 비해 대인관계만족이 높았다($F(1,344)=5.05$, $p<.05$; 남성: $M(SD)=3.49(0.63)$; 여성: $M(SD)=3.34(.66)$). 맞섬 문제에서 성차의 유의도는 경계선 수준이었으며($F(1,344)=3.69$, $p=.055$), 남성이 여성에 비해 맞섬 문제가 높은 경향이 있었다(남성: $M(SD)=2.32(0.69)$; 여성: $M(SD)=2.18(.66)$). 멀어짐 문제, 향함 문제, 대인관계 긍정정서 및 부정정서에서의 성차는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ps>.05$).

주요 변인 간의 상관을 살펴보기 위하여 상관분석을 실시하였고, 남성의 결과는 표 3의 대각선 아래에 여성의 결과는 표 3의 대각선 위에 포함하였다. 우선 남성을 대상으로 한 상관분석에서 유의한 관계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대인관계문제 중 멀어짐 문제가 높을수록 대인관계 긍정정서는 낮고($r=-.36$, $p<.001$), 대인관계 부정정서는 높았으며($r=.46$, $p<.001$), 대인관계만족은 낮았다($r=-.55$, $p<.001$). 맞섬 문제가 높을수록 대인관계 긍정정서와 부정정서 모두 높았으며($r=.27$, $p<.001$; $r=.62$, $p<.001$), 맞섬 문제는 대인관계만족과 유의한

표 2. 성별에 따른 주요 변인의 차이 검정(MANOVA) 결과

Wilks' λ	값		<i>df</i>	<i>F</i>	η^2_{partial}
	.96		(6,339)	2.40	.041
	남성 (n=171)		여성 (n=175)		
	<i>M</i> (<i>SD</i>)	<i>M</i> (<i>SD</i>)	<i>df</i>	<i>F</i>	η^2_{partial}
멀어짐 문제	2.49 (0.76)	2.48 (0.71)	(1,344)	.01	.000
맞섬 문제	2.32 (0.69)	2.18 (0.66)	(1,344)	3.69 [†]	.011
향함 문제	2.63 (0.66)	2.67 (0.68)	(1,344)	.34	.001
대인관계 긍정정서	2.91 (0.67)	2.82 (0.71)	(1,344)	1.52	.004
대인관계 부정정서	2.09 (0.80)	2.01 (0.78)	(1,344)	.97	.003
대인관계만족	3.49 (0.63)	3.34 (0.66)	(1,344)	5.05 [*]	.014

주. [†] = .055 ^{*} *p* < .05.

표 3. 주요 변인 간 상관계수

	1	2	3	4	5	6	7
1. 나이	-	-.14	-.19 [*]	-.03	-.01	-.17 [*]	.07
2. 멀어짐 문제	-.05	-	.30 ^{***}	.32 ^{***}	-.30 ^{***}	.40 ^{***}	-.49 ^{***}
3. 맞섬 문제	-.07	.37 ^{***}	-	.44 ^{***}	.26 ^{***}	.42 ^{***}	-.04
4. 향함 문제	.01	.56 ^{***}	.58 ^{***}	-	.12	.29 ^{***}	.03
5. 대인관계 긍정정서	.05	-.36 ^{***}	.27 ^{***}	-.11	-	.18 [*]	.47 ^{***}
6. 대인관계 부정정서	-.05	.46 ^{***}	.62 ^{***}	.45 ^{***}	.24 ^{***}	-	-.22 ^{**}
7. 대인관계만족	-.02	-.55 ^{***}	-.17	-.33 ^{***}	.46 ^{***}	-.23 ^{**}	-

주. 대각선 아래는 남성(*n*=171), 대각선 위는 여성(*n*=175). ^{*} *p* < .05. ^{**} *p* < .01. ^{***} *p* < .001.

관련을 보이지 않았다($r = -.17, p > .05$). 향함 문제는 대인관계 긍정정서와 유의한 관련을 보이지 않았고($r = .11, p > .05$), 대인관계 부정정서와는 정적 관련을 대인관계만족과는 부적 관련을 보였다($r = .45, p < .001$; $r = -.33, p < .001$). 대인관계 긍정정서와 대인관계 부정정서 간에는 정적 관련이 있었고($r = .24, p < .001$), 대인관계 긍정정서와 대인관계만족 간에는 정적 상관이($r = .46, p < .001$), 대인관계 부정정서와 대인관

계만족 간에는 부적 상관이 있었다($r = -.23, p < .01$).

다음으로 여성의 결과를 살펴보면, 나이가 많을수록 맞섬 문제는 낮고($r = -.19, p < .05$), 대인관계 부정정서도 낮았다($r = -.17, p < .05$). 대인관계문제 중 멀어짐 문제가 높을수록 대인관계 긍정정서는 낮고($r = -.30, p < .001$), 대인관계 부정정서는 높았으며($r = .40, p < .001$), 대인관계만족은 낮았다($r = -.49, p < .001$). 맞섬 문제가 높

을수록 대인관계 긍정정서와 부정정서 모두 높았으며($r=.26, p<.001$; $r=.42, p<.001$), 맞섬 문제는 대인관계만족과 유의한 관련을 보이지 않았다($r=-.04, p>.05$). 향함 문제는 대인관계 부정정서와는 정적 관련을 보였고($r=.29, p<.001$), 대인관계 긍정정서 및 대인관계만족과는 유의한 관련을 보이지 않았다($r=.12, p>.05$; $r=.03, p>.05$). 대인관계 긍정정서와 대인관계 부정정서 간에는 정적 관련이 있었고($r=.18, p<.05$), 대인관계 긍정정서와 대인관계만족 간에는 정적 상관성이($r=.47, p<.001$), 대인관계 부정정서와 대인관계만족 간에는 부적 상관성이 있었다($r=-.22, p<.001$).

연구가설과 연구문제를 살펴보기 위하여 대인관계 긍정정서, 대인관계 부정정서 및 대인관계만족을 각각 준거변인으로 하는 회귀분석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는 표 4에 제시하였다. 우선 대인관계 긍정정서를 준거변인으로 한 회귀분석에서 나이의 효과를 통제한 후에 대인관계문제는 대인관계 긍정정서를 27% 설명하였고($F(3,341)=42.17, p<.001$), 성별은 대인관계 긍정정서를 추가적으로 설명하지 않았다($F(3,337)=1.47, p>.05$). 구체적으로 멀어짐 문제가 높을수록 대인관계 긍정정서가 낮았고($\beta=-.45, t=-8.47, p<.001$), 맞섬 문제가 높을수록 대인관계 긍정정서가 높았으며($\beta=.44, t=8.03, p<.001$), 향함 문제는 대인관계 긍정정서와 유의한 관련이 없었다($\beta=-.03, t=-0.53, p>.05$).

성별의 조절효과와 관련하여, 대인관계 긍정정서에 대한 향함 문제와 성별의 상호작용 효과는 유의하였다($\beta=.14, t=2.30, p<.01$). 그림 1에 제시한 바와 같이 개별 기울기 검증 결과, 남성과 여성 모두 향함 문제와 대인관계 긍정정서는 유의한 관련이 없었다(남성: 기울기 $=-.17, t=-1.70, p=.09$; 여성: 기울기 $=.11,$

$t=1.37, p=.17$). 개별 기울기가 유의하지 않음에도 상호작용 효과가 유의하게 나타난 것은 남성은 향함 문제와 대인관계 긍정정서 간에 부적 경향성을 있었고 여성은 향함 문제와 대인관계 긍정정서 간에 정적 경향성이 있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대인관계 부정정서를 준거변인으로 한 회귀분석에서 나이의 효과를 통제한 후에 대인관계문제는 대인관계 부정정서를 34% 설명하였고($F(3,341)=58.72, p<.001$), 성별은 대인관계 부정정서를 추가적으로 설명하지 않았다($F(3,337)=1.07, p>.05$). 구체적으로 멀어짐 문제가 높을수록 대인관계 부정정서가 높았고($\beta=.27, t=5.42, p<.001$), 맞섬 문제가 높을수록 대인관계 부정정서가 높았으며($\beta=.40, t=7.71, p<.001$), 향함 문제는 대인관계 부정정서와 유의한 관련이 없었다($\beta=.04, t=0.71, p>.05$).

성별의 조절효과에서 대인관계 부정정서에 대한 맞섬 문제와 성별의 상호작용 효과는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beta=-.10, t=-2.00, p<.01$). 그림 2에 제시한 바와 같이 개별 기울기 검증 결과, 남성과 여성 모두 맞섬 문제와 대인관계 부정정서는 정적 관련이 있었고(남성: 기울기 $=.59, t=8.40, p<.001$; 여성: 기울기 $=.35, t=4.98, p<.001$), 맞섬 문제가 대인관계 부정정서에 미치는 영향은 남성이 여성에 비해서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대인관계만족을 준거변인으로 한 회귀분석에서 나이의 효과를 통제한 후에 대인관계문제는 대인관계만족을 27% 설명하였고($F(3,341)=42.05, p<.001$), 성별도 대인관계만족을 추가적으로 3% 설명하였다($F(3,337)=3.14, p<.05$). 구체적으로 멀어짐 문제가 높을수록 대인관계만족이 낮았고($\beta=-.54,$

표 4. 대인관계정서 및 대인관계만족에 대한 대인관계문제가 성별의 회귀분석 결과

준거변인	단계	예측변인	ΔR^2	<i>df</i>	ΔF	<i>B</i>	<i>SE</i>	β	<i>t</i>
대인관계 긍정정서	단계 1	나이	.00	(1,344)	0.13				
	단계 2	대인관계문제	.27	(3,341)	42.17***				
	단계 3	성별의 효과	.01	(4,337)	1.47				
		(상수)				2.86	.03		
		나이				.00	.00	.03	0.56
		떨어짐 문제				-.42	.05	-.45	-8.47***
		맞섬 문제				.45	.06	.44	8.03***
		향함 문제				-.03	.06	-.03	-0.53
		성별				-.01	.03	-.02	-0.40
		떨어짐 문제 x 성별				-.01	.05	-.01	-0.23
	맞섬 문제 x 성별				-.07	.06	-.07	-1.24	
	향함 문제 x 성별				.14	.06	.14	2.30*	
대인관계 부정정서	단계 1	나이	.01	(1,344)	4.17*				
	단계 2	대인관계문제	.34	(3,341)	58.72***				
	단계 3	성별의 효과	.01	(4,337)	1.07				
		(상수)				2.05	.04		
		나이				.00	.00	-.04	-0.09
		떨어짐 문제				.29	.05	.27	5.42***
		맞섬 문제				.47	.06	.40	7.71***
		향함 문제				.05	.07	.04	0.71
		성별				-.01	.04	-.02	-0.33
		떨어짐 문제 x 성별				.01	.05	.01	0.25
	맞섬 문제 x 성별				-.12	.06	-.10	-2.00*	
	향함 문제 x 성별				.03	.07	.03	0.51	
대인관계 만족	단계 1	나이	.00	(1,344)	0.45				
	단계 2	대인관계문제	.27	(3,341)	42.05***				
	단계 3	성별의 효과	.03	(4,337)	3.14*				
		(상수)				3.41	.03		
		나이				.00	.00	-.02	-0.36
		떨어짐 문제				-.49	.05	-.54	-10.41***
		맞섬 문제				.05	.05	.05	0.98
		향함 문제				.06	.06	.06	1.05
		성별				-.08	.03	-.12	-2.56*
		떨어짐 문제 x 성별				-.05	.05	-.05	-0.96
	맞섬 문제 x 성별				-.01	.05	-.01	-0.09	
	향함 문제 x 성별				.12	.06	.12	2.15*	

주. N=346. * $p < .05$, *** $p < .001$. 성별은 효과코딩 함 (남성=-1; 여성=1). 회귀계수 값은 단계 3을 포함한 최종 모형에서의 값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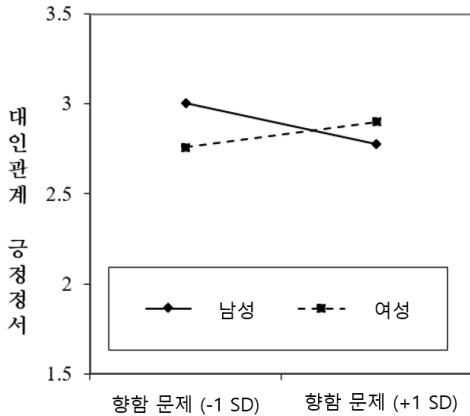


그림 1. 향함 문제와 대인관계 긍정정서 간의 관계에서 성별의 조절효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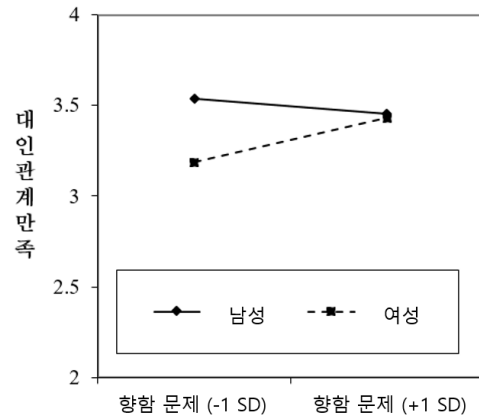


그림 3. 향함 문제와 대인관계만족 간의 관계에서 성별의 조절효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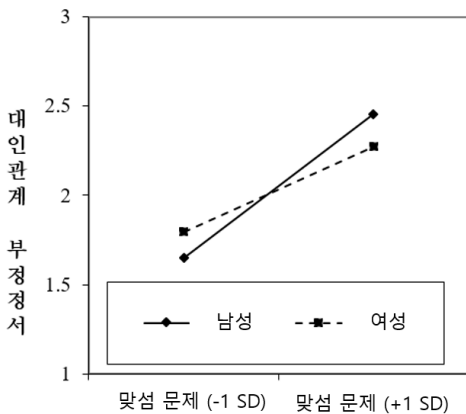


그림 2. 맞섬 문제와 대인관계 부정정서 간의 관계에서 성별의 조절효과

$t=-10.41, p<.001$), 맞섬 문제와 향함 문제는 대인관계만족과 유의한 관련이 없었다($\beta=.05, t=0.98, p>.05; \beta=.06, t=1.05, p>.05$). 대인관계만족에 대한 성별의 주효과는 유의하였고($\beta=-.12, t=-2.56, p<.05$), 향함 문제와 성별의 상호작용효과도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beta=.12, t=2.15, p<.05$). 그림 3에 제시한 바와 같이 개별 기울기 검증 결과, 남성의 경우는 향함 문

제가 대인관계만족에 미치는 영향이 유의하지 않았고(기울기 $=-.06, t=-0.07, p=.49$), 여성의 경우 향함 문제가 대인관계만족에 미치는 영향은 정적으로 유의하였다(기울기 $=.18, t=2.88, p<.01$). 즉 향함 문제가 높을 때에는 남성과 여성의 대인관계만족 수준은 유사하였으나, 향함 문제가 낮을 때 남성에 비해서 여성의 대인관계만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논 의

본 연구에서는 대인관계문제가 대인관계정서 및 대인관계만족에 미치는 영향과 이들 관계에서 성별의 효과를 탐색하였다. 여기서는 주요 결과를 중심으로 논의하고자 한다.

대인관계문제와 대인관계정서 및 대인관계만족 간의 관계

본 연구에서 멀어짐, 맞섬 및 향함 문제를 포함하는 대인관계문제는 대인관계 긍정정서,

대인관계 부정정서 및 대인관계만족을 모두 유의하게 설명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대인관계문제와 대인관계만족 간의 부적 관련성을 보고한 이원경(2011)의 연구와 심은정 등(2019)의 연구 결과를 지지하며, 긍정적 대인관계는 긍정정서와 정적 관련성이 있고 부정정서와 부적 관련성이 있다고 보고한 김명소 등(2001)의 연구 결과와 맥을 같이 한다.

구체적인 대인관계문제를 살펴보면, 멀어짐 문제는 대인관계 긍정정서를 부적으로 설명하였고 대인관계 부정정서를 정적으로 설명하였으며 대인관계만족을 부적으로 설명하였다. 이는 다른 사람과 거리를 두는 대인관계문제와 대인관계만족 간에 큰 크기의 부적 상관을 보고한 심은정 등(2019)의 연구를 지지하는 결과이다. 멀어짐 문제가 높은 사람들은 관계를 시작하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관계를 통하여 기본적인 심리적 욕구 충족이 어렵고 따라서 대인관계를 정서적, 인지적으로 낮게 평가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심은정 등, 2019; 조영주, 윤정설, 2019).

다음으로 맞섬 문제는 대인관계 긍정정서와 대인관계 부정정서를 모두 정적으로 설명하였으며, 대인관계만족을 유의하게 설명하지 않았다. 이는 다른 사람을 통제하고 지배하고자 하는 대인관계문제가 전반적인 스트레스와 관련이 적으며(Wendt et al., 2019), 대인관계만족과도 유의한 관련이 없었다고 보고한 심은정 등(2019)의 연구 결과를 지지한다. 흥미로운 점은 맞섬 문제는 대인관계 긍정정서 및 부정정서와 모두 정적 관련이 있었고, 맞섬 문제가 높은 경우에는 자신의 대인관계에 대한 평가가 복합적이라는 것이다. 즉 맞섬 문제가 높은 경우에 대인관계에서 기쁨, 즐거움, 행복을 느끼면서 동시에 슬픔, 두려움, 분노를 느

낄 수도 있음을 의미한다. 이는 대인관계에서 관계성의 욕구 만족은 낮지만 유능감의 욕구가 충족되기 때문에(심은정 등, 2019; 조영주, 윤정설, 2019), 대인관계에서 부정정서를 경험하기도 하고 긍정정서를 경험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대인관계 긍정정서와 부정정서가 상충되는 것이 아니라 두 개의 독립적인 정서임(박홍석, 이정미, 2016; Watson, et al., 1988)을 지지하는 결과이기도 하다. 이와 같이 맞섬 문제가 높을 때 대인관계에 대한 긍정평가와 부정평가가 서로를 상쇄하기 때문에 맞섬 문제와 대인관계만족 간에 유의한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향함 문제는 대인관계 긍정정서, 대인관계 부정정서 및 대인관계만족과의 관련성이 유의하지 않았다. 이는 다른 사람에게 의지하고 자신을 희생하는 대인관계문제가 대인관계만족을 정적으로 설명한다고 보고한 심은정 등(2019)의 연구 결과나 자신에 대한 관심보다는 타인을 더 염려하는 경향성이 관계에서의 안녕을 정적으로 설명한다고 보고한 Le et al.(2018)의 연구와는 차이가 있다. 그러나 향함 문제가 대인관계만족과 부적 관련을 보이지는 않다는 점에서는 맥을 같이 한다. 향함 문제가 있을 때 관계를 통하여 개인의 자율성이 충족되기 어렵다는 점에서 향함 문제가 높을 때 대인관계에 대한 인지적 평가가 낮을 수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향함 문제를 통하여 관계성이 충족되기 때문에 대인관계에 대한 부적 평가가 상쇄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심은정 등, 2019; 조영주, 윤정설, 2019). 향함 문제는 대인관계에서의 긍정정서와도 부정정서와도 유의한 관련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향함 문제가 대인관계에 대한 인지적 평가뿐만 아니라 정서적 평가에도 영향을 미

치지 않음을 보여준다. 본 연구에서는 탐색하지 않았지만, 향함 문제와 주관적 대인관계 안녕의 관계가 단순히 직선적인 관계가 아니라 보다 복잡한 관계일 가능성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혹은 향함 행동의 동기가 타인에 대한 통제인지 타인과 친밀함을 느끼고 싶은 것인지에 따라서(Wendt et al., 2019) 대인관계 안녕에 미치는 영향이 다를 수도 있을 것이다. 또한 뒤에서 논의하겠지만, 향함 문제가 주관적 대인관계 안녕에 미치는 영향에서 성차가 있다는 점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대인관계문제, 대인관계정서 및 대인관계만족에서 성별의 조절효과

본 연구에서는 대인관계문제, 대인관계정서 및 대인관계만족과 이들 관계에서의 성차를 탐색하였다. 우선 대인관계문제에서의 성차는 유의하지 않았다. 대인관계문제 중 멀어짐 문제에서는 성차가 발견되지 않았고, 이는 멀어짐 문제에서 성차가 유의하지 않았다고 보고한 선행연구(김용순, 2018; 유경철, 안도희, 2019; 조영주, 2020)를 지지한다. 맞섬 문제에서도 성차는 유의하지는 않았고, 이는 조영주(2020)의 연구결과를 지지하지만, 맞섬문제는 남성에게서 높다고 보고한 선행연구(김용순, 2019; 유경철, 안도희, 2019; 조영주, 서현지, 2018)와는 차이가 있다. 향함문제에서 성차는 발견되지 않았고, 이러한 결과는 향함문제가 여성에게서 높다고 보고한 연구(김용순, 2019; 유경철, 안도희, 2019; 조영주, 2020; 조영주, 서현지, 2018; 한가희, 이인혜, 2016) 결과와는 차이가 있다. 대인관계 긍정정서 및 부정정서에서도 성차가 나타나지 않았는데, 이는 육근영 등(2006)의 연구 결과를 지지하며, 긍정정

서는 남학생이 높고 부정정서는 여학생이 높았다고 보고한 한민 등(2012)의 연구 결과와 차이가 있다. 대인관계만족에서의 성차는 유의하였는데, 남성의 대인관계만족이 여성의 대인관계만족에 비해서 높았다. 이는 대학생 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대인관계만족에서 성차가 없었다고 보고한 조영주(2020)의 연구 결과와는 차이가 있지만 본 연구에서 성차의 효과 크기가 작았다는 점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이 전반적으로 대인관계문제, 대인관계정서 및 대인관계만족에서 성차의 효과는 유의하지 않거나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선행연구가 대부분 고등학생이나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것임을 고려할 때, 본 연구의 대상인 20대에서 60대의 일반 성인의 경우에는 대인관계 문제, 정서 및 만족에서 성차가 뚜렷하지 않다고 해석할 수도 있다. 즉, 학교가 학생을 사회화시키는 과정에서 전통적인 성역할 문화를 전달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최임숙, 2004), 학생들의 경우에는 성역할 정체감과 관련된 성차가 나타나는 반면, 학생에 국한되지 않은 일반적인 성인의 경우에 성차가 미미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이는 잠정적인 결론으로 더 많은 연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대인관계문제와 대인관계정서 간의 관계에서 성별의 조절효과는 부분적으로 유의하였다. 즉 대인관계문제 중 맞섬 문제가 높은 경우에 부정정서가 높았는데, 이 때 남성이 여성에 비해서 그 경향성이 더 뚜렷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응답자의 맞섬 문제가 전반적으로 낮은 수준이고(평균=2.25, 표준편차=0.68), 낮은 부정정서가 차분하고 평온한 상태를 의미한다는 점을 고려하면(박홍석, 이정

미, 2016; Watson, et al., 1988), 남성의 경우 맞섬 문제가 적을수록 평온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Gottman(1994)이 부부관계에서 여성이 비해서 남성은 비난이나 경멸과 같은 의사소통으로 부정정서를 경험할 때 생리적 각성이 더 높은 수준으로 일어나며 이를 완화시키는데 여성에 비해서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고 한 점과 연결해 볼 수 있다. 한편, 본 연구의 결과는 성역할 정체감의 관점과는 차이를 보인다. 성역할 정체감의 관점에서 보면 맞섬 문제에 포함된 통제적이고 지배적인 특성은 남성성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남성이 여성에 비해서 맞섬 문제와 관련된 대인관계 양식에 보다 익숙할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남성의 경우 맞섬 문제와 부정정서 간의 관련성이 여성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작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남성에게서 맞섬 문제와 부정정서 간의 관련성이 더 크게 나타났다. 대인관계문제가 대인관계정서 간의 관련성에 관한 선행연구가 제한적이기 때문에 본 연구의 결과에 대한 해석이 추후 연구와 함께 보완되고 검증되기를 기대한다.

대인관계문제가 대인관계만족에 미치는 영향에서 성별의 조절효과도 부분적으로 나타났는데, 남성은 향함 문제가 많을수록 관계만족이 낮았고, 여성의 경우는 향함 문제와 관계만족 간의 관련성이 유의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대학생 대상 연구에서 남성과 여성 모두 향함 문제가 대인관계만족과 유의한 관련이 없었다고 보고한 조영주(2020)의 연구 결과와는 다소 차이가 있다. 타인에게 동조하고 순응하는 문제나 타인이 원하는 것을 민감하게 인식하고 과도하게 책임지려고 하는 자기희생의 문제는 대인관계문제로 인식되기도 하

지만 이러한 관계양식을 통해서 유대감과 친밀감을 느낄 수도 있는데(조영주, 2020), 이는 특히 여성에게 두드러진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즉, 향함 문제는 사회적으로 여성에게 기대되는 여성성과 관련이 있고, 여성의 대인관계에 대한 인지적 평가는 향함 문제의 영향을 덜 받는다는 것이다. 한편, 남성에게 향함 문제는 상대적으로 두드러지게 인식되고 대인관계만족에 부적적으로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

연구의 학문적 의의, 상담에의 함의 및 제한점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학문적 함의를 가진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대인관계에 대한 전반적인 인지적 평가와 정서적 평가를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즉 대인관계에 대한 인지적 평가라고 할 수 있는 대인관계만족에 더하여 대인관계 긍정정서와 대인관계 부정정서를 포함하는 정서적 평가를 포함하였다. Le et al. (2018)이 메타연구에서 관계 안녕에 만족감, 파트너에 대한 긍정정서, 파트너에 대한 부정정서를 포함하였으나, 이들을 구분하여 살펴보는 않았다. 한편, 본 연구에서는 대인관계만족, 대인관계 긍정정서, 대인관계 부정정서 각각과 대인관계 문제 간의 관계를 살펴봄으로써 대인관계에서의 안녕감을 보다 면밀하게 살펴보았다는 데 의의가 있다.

둘째, 일상의 문제가 적다고 해서 주관적 안녕이 반드시 높은 것은 아닌 것처럼 대인관계문제가 적다고 해서 반드시 대인관계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들 간의 관련성에 대한 연구는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 본 연구에서는 대인관계문제를 멀어짐

문제, 맞섬 문제 및 향함 문제로 나누고, 각각의 대인관계문제와 대인관계정서 및 대인관계만족과의 관련성을 경험적으로 연구하고 탐색하였다는 데에도 의의가 있다.

셋째, 대인관계문제와 관련된 연구는 대부분 고등학생과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였고, 성차를 살펴본 연구는 제한적이었다. 연구 대상과 관련하여 본 연구에서는 20대에서 60대에 이르는 남녀 성인을 대상으로 하여 다양한 대인관계 경험이 포함될 수 있도록 하였고(권석만, 2004), 연구 결과의 일반화를 용이하게 했다는 점에도 의의가 있다. 또한, 연령별 남녀의 성비를 고려하여 자료를 수집하여 연구변인들의 관계에서 성차를 탐색하였다는 점도 본 연구의 의의라고 할 수 있다.

다음으로 본 연구의 상담에의 함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 결과 대인관계문제와 대인관계정서 및 대인관계만족과 상당한 관련성이 있지만, 대인관계 문제의 종류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멀어짐 문제는 긍정정서, 부정정서 및 대인관계만족과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상담자는 맞섬 문제나 향함 문제에 비해서 멀어짐 문제에 초점을 맞출 수 있을 것이다. 즉, 대인관계에서 맞섬 문제나 향함 문제를 겪는다 하더라도 대인관계 안녕에 대한 이들의 상대적 영향은 작기 때문에 대인관계를 형성을 시도하도록 격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김혜경과 김진숙(2019)도 대인관계 향상을 위한 집단상담 프로그램 효과의 메타분석 연구에서 정서관련 변화를 위해서는 대인관계 회피 경향성과 대인관계에서의 두려움을 효과적으로 다루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둘째, 맞섬 문제가 대인관계 긍정정서에 미치는 영향은 정적이었고, 대인관계 부정정서

에 미치는 영향도 정적이었으며, 대인관계만족에 미치는 영향은 유의하지 않았다. 이는 대인관계 맞섬 문제를 보이는 내담자가 양가적인 감정을 가질 수 있음을 의미하며, 긍정정서와 부정정서가 독립적이라는 점과도 맥을 같이 한다(박홍석, 이정미, 2016; Watson et al., 1988). 상담자는 내담자가 복합적인 정서 경험을 탐색하고 이를 타당화하며, 양가적 감정이 있다면 이를 이해하고 통합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을 것이다.

셋째, 향함 문제가 대인관계 긍정정서 및 부정정서와 대인관계만족에 미치는 영향은 유의하지 않았고, 향함 문제가 높은 사람들이 향함 문제를 '문제'로 인식하지 않을 수도 있음을 의미한다. 이 때, 상담자는 성별에 따른 차이를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남성과는 달리 여성에게 향함 문제는 대인관계만족을 저해하는 요인이 되지 않을 수 있고, 여성 내담자는 남성 내담자에 비해서 향함 문제를 문제라고 인식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상담자가 문제라고 평가하는 것과 내담자의 관점에서 문제라고 인식되는 것이 차이가 있고, 상담자는 이러한 차이를 알고 내담자의 주관적 경험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는 내담자가 문제 삼지 않는 것은 다루지 않고 내담자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을 목표로 삼는 해결중심치료(de Shazer et al., 2007)의 원칙과도 맥을 같이 한다.

본 연구가 위에 기술한 학문적 의의와 상담에의 함의를 가지지만, 다음과 같은 제한점을 가진다. 연구의 제한점을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과 함께 논의하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의 연구 대상자는 20대에서 60대의 성인으로 다양한 연령대를 포함하였으나 65세 이상의 노년기의 성인은 16명(4.6%)에 불과하다는 점이

본 연구의 제한점이라고 할 수 있다. 노년기는 점점 확대되고 발달 과정상 보이는 특성들도 다양하기 때문에, 연구자들은 노년기를 세분화하여 65세에서 74세까지를 연소노년기(the young-old), 74세에서 84세까지를 고령노년기(the old-old), 85세 이상을 초고령노년기(the oldest-old)로 구분하기도 한다(이상철, 2018; Murrell, Norris, & Grote, 1988). 따라서 연령과 관련된 본 연구 결과를 20대에서 60대를 넘어 일반화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 후속 연구에서는 넓은 범위의 노년기의 성인으로부터 자료를 수집하여 연구함으로써 연령과의 관계를 일반화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대인관계문제가 대인관계 긍정정서, 대인관계 부정정서 및 대인관계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개념화하였다. 그러나 반대로 대인관계에서 긍정정서를 적게 느끼고 부정정서를 많이 느끼며 만족이 낮기 때문에 대인관계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인식할 수 있다. 이들 간의 인과관계를 명료화하기 위해서 종단연구가 필요하다.

셋째, 기술한 바와 같이 대인관계문제는 자기보고로 측정되었기 때문에 대인관계문제에 개인의 평가와 판단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대인관계문제, 대인관계정서 및 대인관계만족 간의 관계에 관한 본 연구 결과를 해석할 때 이러한 점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후속 연구에서는 대인관계문제를 보다 객관적으로 측정하기 위하여 주변 사람들의 보고나 관찰 등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구재선 (2018). 한국판 긍정적 및 부정적 경험

척도(SPANE): 요인구조 및 성별 측정 동일성. *감성과학*, 21(3), 103-114.

권석만 (2004). *젊은이를 위한 인간관계의 심리학*. 서울: 학지사.

김명소, 김혜원, 차경호 (2001). 심리적 안녕감의 구성개념분석: 한국 성인 남녀를 대상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15(2), 19-39.

김미정, 조영주 (2017). 미혼커플의 성인애착이 관계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역기능적 의사소통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22(2), 263-288.

김여흠, 이운주 (2013). 대학생의 행복감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불안, 공감, 사회적 기술, 분노표현양식, 대인관계만족에 대한 구조방정식 모델 검증. *상담학연구*, 14(3), 1587-1604.

김용순 (2019). *대학생의 자아정체감과 거부민감성이 대인관계문제에 미치는 영향 및 성(性)과 사회적 위축 수준의 조절효과*. 박사학위논문, 대전대학교.

김지경, 김명소 (2003). 한국남녀의 관계적 자아의 특성: 다원적 구성요인 탐색 및 타당성 분석. *한국심리학회지: 문화 및 사회문제*, 9(2), 41-59.

김혜경, 김진숙 (2019). 청소년의 대인관계 향상을 위한 집단상담 프로그램 효과의 메타분석 연구. *청소년학연구*, 26(4), 113-139.

노명선, 전홍진, 이해우, 이효정, 한성구, 함봉진 (2006). 대학생들의 우울장애에 관한 연구: 유병율, 위험요인, 자살행동 및 기능장애. *신경정신의학*, 45(5), 432-437.

문선모 (1980). *인간관계훈련 집단상담의 효과에 관한 일 연구*. 경상대학교 논문집, 19,

- 195-204.
- 박미라 (2017). 대학 신입생의 정신건강 관련 상담요구에 관한 연구: 스트레스, 우울·불안, 분노조절, 대인관계를 중심으로. *기독교육논총*, 52, 221-256.
- 박홍석, 이정미 (2016). 정적정서 부적정서 척도(PANAS)의 타당화.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35(4), 617-641.
- 배애진, 심혜원 (2018). 성인애착과 대인관계문제의 관계에서 자비불안과 정서조절의 매개효과.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30(4), 1193-1127.
- 서영석 (2010). 상담심리 연구에서 매개효과와 조절효과 검증: 개념적 구분 및 자료 분석 시 고려사항.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2(4), 1147-1168.
- 심은정, 조영주, 박단비 (2019). 성인애착과 관계만족의 관계에서 대인관계문제의 매개효과. *상담학연구*, 20(6), 71-92.
- 양은정, 노혜림, 박재현, 전홍진, 심은정 (2019). 지각된 불공정성과 자살위험의 관계에서 우울을 통한 긍정적 대인관계의 조절된 매개효과: 성별분석.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31(2), 477-501.
- 어유경, 박수현 (2018). 정서억제가 친밀한 대인관계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자기구성 개념의 조절효과.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30(1), 121-141.
- 오영진, 박봉순 (2011). 대학생의 애착과 주관적 안녕감과 관계: 대인관계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대한가정학회지*, 49(10), 81-90.
- 유경철, 안도희 (2019). 청소년이 지각하는 과보호와 행복감의 관계에서 분노 및 대인관계문제의 매개효과.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19(13), 821-844.
- 육근영, 방희정, 옥 정 (2006). 자아 일관성과 주관적 안녕감: 자아 통제감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19(3), 47-65.
- 이경희, 김봉환 (2010). 정서표현양가성과 정서조절이 대인관계에 미치는 영향: 정서명확성, 정서강도 및 정서주의의 군집 비교.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2(2), 369-384.
- 이상철 (2018). 노년기 연령집단별 객관적·주관적 사회적 고립과 대인관계갈등 유형이 인지기능에 미치는 영향. *한국노년학*, 38(4), 811-835.
- 이원경 (2011). 대학생의 완벽주의와 대인관계 만족의 관계: 내면화된 수치심과 대인관계문제의 매개효과. *대학생활연구*, 17(2), 74-90.
- 이현희, 김은정, 이민규 (2003). 한국판 정적정서 및 부적 정서 척도(Positive Affect and Negative Affect Schedule; PANAS)의 타당화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22(4), 935-946.
- 장휘숙 (2002). *여성심리학 (2판)*. 서울: 박영사.
- 조영주 (2020). 대학생의 성역할 정체감, 대인관계문제 및 대인관계만족의 관계: 성차를 중심으로. *상담학연구*, 21(4), 169-195.
- 조영주, 서현지 (2018). 청소년의 대인관계문제 원형모형: 주양육자와의 애착 및 기본심리욕구 만족과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30(2), 345-370.
- 조영주, 윤정설 (2019). 한국형 대인관계문제 원형척도 요인 탐색. *상담학연구*, 20(5), 199-215.

- 최인영, 김은하, 신희천 (2018). 사회부과적 완벽주의가 대인관계만족에 미치는 영향: 완벽주의적 자기제시와 거절민감성의 매개효과. *한국심리학회지: 학교*, 15(2), 133-153.
- 최임숙 (2004). 중, 고, 대학생의 성역할 정체감 발달과 변화.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17(2), 213-232.
- 한가희, 이인혜 (2016). 대학생의 공감능력과 대인관계 문제: 스마트폰 중독의 조절효과.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21(4), 683-697.
- 한나리, 이동귀 (2010). 한국 대학생의 대인관계 유능성 척도 타당화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2(1), 137-156.
- 한민, 최인철, 김범준, 이훈진 (2012). 한국 대학생의 성차: 정서, 사고방식, 가치관을 중심으로. *조사연구*, 13(3), 33-62.
- 허재홍 (2014). 정서역제가 주관적 안녕감과 대인관계에 미치는 영향: 경험회피의 중재효과. *상담학연구*, 15(2), 595-608.
- 홍상환, 박은영, 김영환, 권정혜, 조용래, 진유경 (2002). 한국형 대인관계문제검사 원형 척도의 단축형(KIIP-SC) 구성.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21(4), 923-940.
- Alden, L. E., Wiggins, J. S., & Pincus, A. L. (1990). Construction of circumplex scales for the inventory of interpersonal problems. *Journal of Personality Assessment*, 55(3&4), 521-536.
- Broverman, I. K., Vogel, S. R., Broverman, D. M., Clarkson, F. E., & Rosenkrantz, P. S. (1972). Sex-role stereotypes: A current appraisal. *Journal of Social Issues*, 28(2), 59-78.
- Buhrmester, D., Furman, W., Wittenberg, M. T., & Reis, H. T. (1988). Five domains of interpersonal competence in peer relationship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5(6), 991-1008.
- de Shazer, S., Dolan, Y., Korman, H., McCollum, E., Trepper, T., & Berg, I. K. (2007). *More than miracles: The state of the art of solution-focused brief therapy*. New York: Haworth Press.
- Diener, E. (1984). Subjective well-being. *Psychological Bulletin*, 95(3), 542-575.
- Diener, E. (1994). Assessing subjective well-being: Progress and opportunities. *Social Indicators Research*, 31(2), 103-157.
- Diener, E., Emmons, R. A., Larsen, R. J., & Griffin, S. (1985). The satisfaction with life scale. *Journal of Personality Assessment*, 49(1), 71-75.
- Flores-Verduzco, G. R., Fraijo-Sing, B. S., & Tapia-Fonllem, C. O. (2020). School environment as a mediating variable between family support and social wellbeing in high school students. *International Journal of Emotional Education*, 12(2), 26-44.
- Gottman, J. M. (1994). *What predicts divorce?: The relationship between marital processes and marital outcomes*. New York: NY, US: Lawrence Erlbaum Associates.
- Horney, K. (2006). 신경증적 갈등에 대한 카렌 호나이의 정신분석 (이희경, 윤인, 이해리, 조한익 공역). 서울: 학지사. (원전은 1992년에 출판)
- Horowitz, L. M., Rosenberg, S. E., Baer, B. A., Ureno, G., & Villasenor, V. S. (1988). Inventory of interpersonal problems: Psychometric properties and clinical applications. *Journal of Counseling and Clinical*

- Psychology*, 56(6), 885-892.
- Kring, A. M., & Gordon, H. A. (1998). Sex differences in emotion: Expression, experience, and physiology.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4(3), 686-703.
- Le, B. M., Impett, E. A., Lemay Jr., E. P., Muise, A., & Tskhay, K. O. (2018). Communal motivation and well-being in interpersonal relationships: An integrative review and meta-analysis. *Psychological Bulletin*, 144(1), 1-25.
- Lucas, R. E., & Gohm, C. L. (2000). Age and sex differences in subjective well-being across cultures. In E. Diener & E. M. Suh (Eds.), *Culture and subjective well-being* (pp. 291-317). Cambridge, MA: The MIT Press.
- Murrell, S. A., Norris, F. H., & Grote, C. (1988). Life events in older adults. In L. H. Cohen(Ed.), *Life events and psychological functioning: Theoretical and methodological issues* (pp. 96-122). Newbury Park, CA: Sage.
- Myers, D. G., & Diener, E. (1995). Who is happy? *Psychological Science*, 6(1), 10-19.
- Preacher, K. J., Curran, P. J., & Bauer, D. J. (2006). Computational tools for probing interaction effects in multiple linear regression, multilevel modeling, and latent curve analysis. *Journal of Educational and Behavioral Statistics*, 31(4), 437-448.
- Ryan, R. M., & Deci, E. L. (2002). An overview of self-determination theory: An organismic dialectical perspective. In E. L. Deci & R. M. Ryan (Eds.), *Handbook of self-determination research*. (pp. 3-33). Rochester, NY: The University of Rochester Press.
- Ryff, C. D. (1989). Happiness is everything, or is it? Explorations on the meaning of psychological well-being.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7(6), 1069-1081.
- Schlein, A., & Guerney, B. G. (1971). *Relationship enhancement*. San Francisco, CA: Jossey-Bass
- Seligman, M. E. P., & Csikszentmihalyi, M. (2000). Positive psychology: An introduction. *American Psychologist*, 55(1), 5-14.
- Sullivan, H. S. (1953). *The interpersonal theory of psychiatry*. New York: Norton.
- Urbano-Conteras, A., Martínez-González, R.-A., & Iglesias-García, M.-T. (2018). Validation of the subjective well-being in couple relationship scale. *Marriage and Family Review*, 54(6), 598-615.
- Watson, D., Clark, L. A., & Tellegen, A. (1988).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brief measures of positive and negative affect: The PANAS scale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4(6), 1063-1070.
- Wendt, L. P., Wright, A. G. C., Pklonis, P. A., Nolte, T., Fonagy, P., Montague, P. R., Benecke, C., Kriegar, T., & Zimmermann, J. (2019). The latent structure of interpersonal problems: Validity of dimensional, categorical, and hybrid models.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128(8), 823-839.
- West, S. G., Finch, J. F., & Curran, P. J. (1995). Structural equation models with nonnormal variables: Problems and remedies. In R. H. Hoyle (Ed.).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Concepts, issues, and applications* (pp. 56-75). Newbury Park, CA: Sage.
- Wood, W., Rhodes, N., & Whelan, M. (1989).

- Sex differences in positive well-being: A consideration of emotional style and marital status. *Psychological Bulletin*, 106(2), 249-264.
- Yu, E. A., & Chang, E. C. (2021). Relational meaning in life as a predictor of interpersonal well-being: A prospective analysis.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 168, 1-6.
- Zuckerman, M., Li, C., & Diener, E. F. (2017). Societal conditions and the gender difference in well-being: Testing a three-stage model.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43(3), 329-336.

원 고 접 수 일 : 2021. 03. 26

수정원고접수일 : 2021. 07. 28

게 재 결 정 일 : 2021. 09. 01

Effects of Interpersonal Problems on Interpersonal Affect and Interpersonal Relationship Satisfaction among Adults: Moderating Effects of Gender

Young-ju Cho

Hankyong National University, Assistant Professor

This study explored the relationships between interpersonal problems(away from people, against people, toward people), interpersonal affect(positive, negative) and interpersonal relationship satisfaction, as well as the moderating effects of gender. Survey data was collected from 346 adults ranging in age from 20 to 60, and it was analyzed using correlation and regression analyses. The study's findings are as follows. First, interpersonal problems were partially associated with positive affect, with complex directions of association. Second, interpersonal problems were partially positively related to negative affect. Third, interpersonal problems were partially negatively related to interpersonal relationship satisfaction. Fourth, gender had a significant moderating effect in the relationships between against people problems and negative affect, as well as between toward people problems and interpersonal relationship satisfaction. Theoretical and practical implications, as well as limitations of this study were discussed.

Key words : *Interpersonal Problems, Interpersonal Positive Affect, Interpersonal Negative Affect, Interpersonal Relationship Satisfaction, Gender Difference, Moderating Effect*